금주의 법구-〈자경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17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공공 출판사업도 기독교 일색
'네버엔딩' 尹정부 '불교홀대'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도서 불교 관련 도서 '5종'에 그쳐
종교 37종 중 기독교는 30종
추천위원에 불교학자 2명 뿐
기독교는 7명… 목사도 참여
학술 부문 불교계 위원 '0명'
사실상 국고로 '출판선교' 나서

"기독교 종수 많아, 위원 랜덤"
출판진흥원, 원론적인 해명만
불교출판계 "기독 편중 심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석열 정부의 불교 홀대가 출판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서 보급을 위해 국고를 들여 선정하는 '세종도서' 종교 부분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 일색인 데다,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들도 기독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은 11월 22일 '2023 세종도서 교양 · 학술 부문 지원사업 추천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도서 교양 부문의 경우 10개 분과 550종이 선정됐고, 학술 부문은 10개 분과 390종이 선정됐다. 종교 분과는 교양 부문 37종이, 학술 부문 23종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의 집계에 따르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는 불교 관련 도서가 5종(종교 4 · 예술1)이었고, 학술 부문은 8종(철학 1 · 종교4 · 기술과학1 · 예술2)이 확인됐다. 반면 교양과 학술 부문 종교 분과의 기독교 편중은 심각한 상태였다. 교양 부문 종교 분과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였고, 학술 부문 종교 분과 23종 중 13종이 기독교 학술서로 채워졌다. 각각 4종만이 선정된 불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선정되는 불교도서 종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종도서 교양 · 학술부문에 선정된 불교도서는 22종이었으며, 2020년에는 21종, 2021년에는 19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3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이 수치를 유지했다.

이 같은 기독교 편중 현상은 각 부문별 추천위원 배정에도 나타난다. 올해 세종도서 교양부문 추천위원 212명 중 불교계 인사로 확인되는 위원은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정도다. 학술부문 추천위원 80명 중에는 불교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독교의 경우 교양부문 추천위원으로 교회 담임 목사와 각 교단 신학대 교수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부문 추천위원에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러다 보니 선정 심사총평들도 기독교 일색으로 종교 분야 총평 상당 부분이 기독교 도서의 상찬이며, 불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내용은 몇 줄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도서는 부문별 출판 종수에 비례해 선정된다. 추천위원도 분야별 추천 후보자를 받아 3배수로 후보자 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독교 도서 편중 현상은 '양서를 보급해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양서 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겠다'는 세종도서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부문별 출판 종수를 비례해 도서가 선정될 경우 종교출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가진 기독교 출판계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맹점을 가진다.

특히 세종도서는 도서 정가 90%의 금액으로 1종당 800만원 내외를 구입해 전국 공공 · 전문 · 병영 도서관 등에 보급되는 공공사업임에도 기독교 도서로 종교 도서 선정이 편중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출판선교'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불교계 출판사 관계자는 "교양 부문 선정 도서인 〈리퀴드 처치〉는 미국 뉴저지주의 리퀴드 교회의 역동적인 6가지 사역을 소개한 책이고,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는 기독교 창조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진 교양 대중 도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선정 결과뿐 아니라 심사총평도 고개가 갸웃한 부분이 많다"며 "종교분야뿐 아니라 '역사 · 지리 · 관광 분야'의 경우 불교문화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분야별 심사위원에 불교 전문가를 좀 더 폭넓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세종도서 선정 사업은 국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다. 부문별 출판 종수에 비례해 선정한다는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감안해도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선정된 책들의 내용도 선교사 이야기나 기독교 교리 관련 서적들이 많다. 이는 대중적인 교양 도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출판문화협회, 종교평화위원회와 논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세종도서 교양 부문 종교분과 비교

불교
△가람유사 해인사편(1-2)(학교법인 동국대 출판문화원)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민족사) △윤리와 인문학으로 만나는 불교사상(모과나무) △집 떠나 사는 즐거움(불광미디어)(이상 4종)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지난 100년간 세계기독교를 만든 21명의 증인들(복있는사람) △JPIC, 예언자의 세상 읽기 : 정의, 평화, 창조 보전 바로 알기(생활성서사) △관옥 이현주의 토마복음 읽기(도서출판삼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가톨릭출판사)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1)(부흥과개혁사) △기독교 신학의 새 길, 도의 신학(도서출판 동연) △기원 이론(새물결플러스) △길 위에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대한기독교서회)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 : 위기에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비아토르) △리퀴드 처치: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규장) △마렌 보딩 이야기: 우유로 조선 아기 살린 흰 옷 입은 천사(밀알북스) △모던 파시즘: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위협하는 현대 파시즘(드러커마인드) △사랑의 계시(가톨릭출판사) △세계사를 바꾼 선교이야기(드림북)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주식회사 복있는사람) △신과 악마 사이(주식회사 복있는사람)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주식회사 시공사) △신학, 하느님과 이성(가톨릭출판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긴 의사 주보선: 삶으로 선교를 보여 준 한 의료선교사의 삶과 유산(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대한기독교서회) △여성 안수 투쟁사(뉴스앤조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도서출판CUP)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밀알북스)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브루더호프 이야기(신앙과지성사) △종교개혁 신학과 개신교 신앙(도서출판 동연)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에 관한 사회학 · 목회학적 분석(도서출판 동연) △지혜 피라미드: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씽크스마트)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 주제별 성경연구(누림과 이룸) △한울회 사건의 진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한 신앙모임(대한기독교서회) (이상 30종)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원 및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조계종, 성북구 정릉골 자비로 채우다

조계종 총무원 · 산하기관, 11월 22일 정릉3동 연탄나눔

매년 이맘때쯤이면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펼쳐지는 연탄 나눔. 보통 연탄 배달은 장당 750원 정도지만 서울시내에서 950원 밑으로는 배달마저 꺼리는 동네가 있다. 국민대 인근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이른바 '정릉골'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정릉골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3만4800장이 배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22일 오후 정릉3동 일원에서 총무원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무산선원 및 길상사 대중스님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정릉골 200여 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는 곳만 176가구에 달해 자비행에 나선 것. 연탄뿐만 아니라 쌀 2000kg도 함께 배달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봉사단은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앞서 국민대 학군단 앞에 집결했다. 지역구가 성북구인 김영배 국회의원과 이승로 구청장도 힘을 보탰다.

진우 스님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연탄을 나누게 돼 이웃이 희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비롭게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봉사단은 여러 개로 조를 나눠 정릉골 가구에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필두로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줄을 지어 연탄을 옮겼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아마 연탄을 잘 모를 것 같은 젊은 종무원이 연탄을 본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나도 연탄 본지가 오래됐다"며 멋쩍게 웃었다.

연탄 배달에는 2016년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출신 유학생 2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에 온지 1년 반이 지난 크리스티안 알파(23) 씨는 "성남 봉국사에 지내며 동국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다. 연탄을 처음 보는데 (봉사활동이) 재밌다"고 말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릴 시기인 소설(小雪)이지만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봉사단은 길게 줄을 지어 연탄을 나르고, 거리가 먼 곳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의 자비행은 한겨울 온기가 가장 늦게 전해지는 달동네를 품었다.

윤호섭 기자

성파 대종사 결제법어…"한 물건 신령스럽네"

동안거 결제 앞두고 법어 내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계묘년 동안거 결제에 앞서 결제법어를 내려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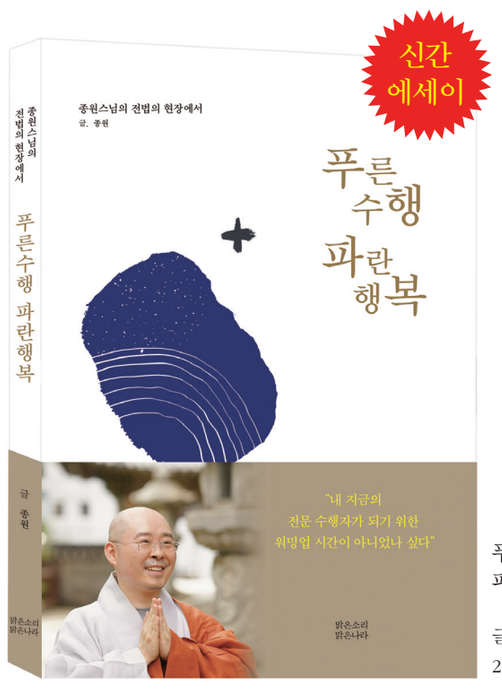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는 11월 23일 발표한 결제법어에서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 오늘 도리어 더욱 밝구나. 대천세계가 모두 다 없어져도 이 물건은 언제나 신령스럽네"라는 게송을 밝히고, 동안거 결제를 앞둔 사부대중에게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살아서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목숨을 걸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어 "알겠는가? 경계 없어지니 사람 없고 새도 드문데 지는 꽃 살포시 푸른 이끼에 떨어진다. 노승이 일없이 소나무와 달을 보다가 때로 오가는 흰 구름을 보고 웃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기2567년 계묘년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27일부터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여 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갔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법어 5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맑은소리맑은나라 문의 051) 255-0263 | E-mail. puremind-ms@hanmail.net



푸른수행 파란행복
글. 종원
256면 | 20,000원

종원스님의 포교에세이
푸른수행 파란행복

포교의 일선에서 뽑아올린
주옥같은 **신행 이야기**를
전국 서점에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단 없는 포교 원력으로 전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종원스님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